

# 효율적 진료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병원’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민영주



병원을 배경으로 병원장과 2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직원들이 모였다. 왼쪽부터 허순희 수간호사, 김형국 원장, 홍성익 건진운영과장, 박희열 진료지원과장.

※ 금강아산병원 : 1980년 8월 1일 개원. 1989년 9월 1일 아산재단에 편입. 지하 2층, 지상 4층, 별관(종합진진센터). 정형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종합진진센터 등 진료. 2015년 월평균 외래환자 8240명, 입원환자 2021명. 82병상, 직원 140명.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18. 금강아산병원의 주소다. 주소개편 이전 지명으로는 이촌1동 또는 동부이촌동인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연예인과 알부자 등이 모여 사는 부촌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예나 이제나 유명 맛집들도 많다.

허순희(50) 금강아산병원 2병동 수간호사는 회식 등을 하러 가끔 병원 부근 음식점을 찾을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금강아산병원에서 진료나 수술 받은 환자의 가족들이 많은데, 허 간호사가 오면 사장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기울여 음식을 내오는 까닭이다. 허 간호사는 이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구성상 병원 선택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여유 있는 주민들에게 여전히 단골인 병원이 금강아산병원이기 때문이다. 아산재단이 운영하는 8개 병원 중에서 병상수가 가장 적지만, 실력과 서비스로 서울 용산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금강아산병원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

### 서울 중산층 환자의 단골병원

금강아산병원은 1980년 8월 1일 6개 진료과, 67병상으로 문을 열었다. 병원을 운영한 곳은 지금 현대백화점의 전신인 금강개발(주)이었다. 원래는 병원 건너편에 자리한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였다. 2년여 동안 4층 건물 전체를 상가로 운영하다가 병원으로 탈바꿈했다.

현대그룹이 서울에 세운 첫 번째 병원이었다. 시설이 쾌적하면서 고급스러웠고, 의료진의 실력도 뛰어났다. 현대그룹 계열사 직원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몸이 불편하면 우선적으로 찾는 병원이었다. 내과와 정형외과 중심으로 서울 중산층 만성질환자의 단골병원일 만큼 인기가 높았다.

1982년 12월에는 1차 증축을 실시해 12개 진료과, 140병상으로 늘리면서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1989년 9월 1일에는 아산재단에 편입되면서 정읍과 보성·보령·영덕·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아산재단의 우산 아래 놓인 여섯 번째 병원이 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접어들며 금강아산병원도 변화의 물결에서 비껴갈 수 없었다. 서울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빠져나갔다. 1980년대 후반 용산구에만 4개의 종합병원이 들어섰고, 1990년대 의약분업으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상을 축소해야만 했다. 140병상에서 120병상과 111병상으로 줄였다가 2014년부터는 82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금강아산병원은 매년 가을 12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위), 간호부는 2년마다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을 관내 보육원에 기부한다(아래). 이 외에도 경로잔치를 지원하는 한편 3년 전부터 매년 10~15명의 새터민에게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다.

개원 당시부터 아파트에 둘러싸인 입지조건상 병원의 외형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했다. 자체 주차장에는 승용차를 5~6대밖에 세울 수 없어서 인근 동작대교 아래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리모델링을 망설이다 보니 병원 걸모습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아산재단 산하 병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직원들 사이에는 ‘금강아산병원을 처음 찾은 사람들은 세 번 놀란다’는 우스갯소리가 퍼져 있다. 먼저 좁고 길쭉하면서도 약간 낡은 외양에 놀란다는 것이다.

과연 서울아산병원을 세운 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맞는 것인가, ‘아산’이라는 이름만 따온 유사 병원이 아닌가 의심하던 환자들은 1층 현관에 들어서면서 한 번 더 놀란다고 한다. 정면에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가 부드럽게 미소 짓는 준영이 걸려 있어서 그제야 아산재단 산하 병원이 맞긴 맞구나 고개를 끄덕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은 의료진을 비롯한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친절함에 놀란다. 적절한 치료를 받아 몸의 불편함이 해소된



넓지 않은 병원 옥상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병원장과 직원들. 옥상 주위를 둘러싼 높은 아파트들이 유독 눈에 띈다.

환자들은 높은 만족감 속에 금강아산병원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 환자의 만족도 높은 병원

2009년 병원장에 부임한 김형국(56) 원장은 혁신을 꾀했다. 응급실을 없애고, 내과의 인력을 개편하는 등 환자들이 많이 찾는 진료과목 중심으로 과감한 변화를 추진했다.

당시 새롭게 찾아낸 돌파구가 인공신장실과 재활의학과 개설이었다. 2009년 3월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민호 교수의 지휘 아래 1차로 약 6개월간 공간을 확보한 뒤 도면을 설계하여 장비를 구매했고,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4주간 실무교육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은 금강아산병원만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다. 그리고 2010년 1월 서울아산병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재활의학과를 개설했다. 운동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물리치료사 3명과 운동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4명으로 늘어났다. 재활의학과는 정형외과와 내과 등과 더불어 금강아산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진료과로 자리 잡았다.

물리치료사인 박희열(56) 진료지원과장은 “거동이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했던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회복됐을 때 의료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31년 전인 1985년 당시 금강병원에 입사한 박 과장은 “초기에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환자 중심으로 물리치료실이 운영됐으나 아산재단에 편입된 뒤 일반 환자를 많이 치료하기 시작했다”면서 “서울과 정읍 등 아산재단의 여러 병원 직원들과 함께 받은 그룹 교육인 ‘유답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교육에서 직장가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배웠다”고 돌아봤다.

## 금강아산병원 직원의 보람

앞서 언급한 허순희(50) 수간호사 또한 금강병원 시기인 1987년 3월 입사했다. 주로 정형외과에서 근무한 허 간호사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왔던 노인 환자들이 수술이 잘 되어 걸어서 퇴원할 때 가장 기쁘다”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하나뿐인 딸도 서울아산병원에서 출산했을 정도로 직장 덕을 많이 봤다.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므로 그때까지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며 웃었다.

1991년 입사한 홍성익(53) 건진운영과장은 “입사 2년 뒤인 1993년 실시한 대수선(개보수) 공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3개월여 공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촌역 옆에 있던 백림빌딩에서 외래진료만 봤다. 여유 인력은 서울아산병원 과건근무를 하거나, 허순희 간호사처럼 울산 현대자동차에 마련된 출장 검진센터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병원 보수공사를 할 때는 영안실이 설치된다는 헛소문 때문이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주민들이 병원 공사장으로 물러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직원들이 맞서서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사 뒤에는 더욱 깨끗해진 모습에 병원을 찾는 주민들이 오히려 늘었다”는 홍 과장은 “병원을 다니며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 환자들의 희망처럼 병원 규모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 금강아산병원을 찾는 외래환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인 용산구민이다. 금강아산병원은 환자들에게 특화된 적절하고 효율적인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지역이지만 아산재단 설립이념에 맞춰 어려운 이웃을 찾아 의료지원을 하고, 관내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과 보육원 돕기 등 사회공헌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역 대표병원의 상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 “도전의 원동력은 ‘주인의식’이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형국(56) 원장은 오후 5시경 진료를 마치고 4층의 원장실로 들어섰다. 혼자서 정형외과를 맡고 있는 김 원장은 월·수·금요일은 환자를 진료하고, 화·목요일은 대퇴부와 무릎 인공관절 등 하지관절을 수술한다. 토요일에도 오전 진료를 책임진다. 진료를 마친 뒤에는 병실을 돌며 입원환자들을 돌본다.

간호사들은 “원장님은 실력이 뛰어난데다가 친절하셔서 찾는 환자들이 많다”고 말한다. 피곤할 법도 하건만 김 원장은 눈만 약간 충혈됐을 뿐 활기찬 몸짓으로 병원 현황을 설명했다. 7년간 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병원 운영을 안정케도에 올려놓은 김 원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배어있었다.

### -금강아산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 병원은 서울아산병원보다 9년이나 빠른 1980년에 개원했다. 현대그룹이 당시 서울에 세운 유일한 병원이었어서 현대 계열사 직원들은 아프면 우리 병원을 찾았다. 1980년대에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립병원이었다. 1989년 아산재단이 서울아산병원을 설립하고 우리 또한 아산재단에 편입되면서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꼈다. 서울아산병원의 모태라는 자부심이 강했는데, 그 인식에 괴리감이 생기면서였다.

2009년 병원장에 임명된 뒤 경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내 걸었다. 우선 직원 의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우리가 아산재단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주인 의식’을 강조했다. 모든 도전은 주인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많이 찾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인공신장실 등을 중심으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이제는 140명 직원들이 각자의 분야에 집중하면서 자긍심이 높아졌다. 자연스럽게 환자가 늘었고, 경영실적이 좋아졌다. 최근 10년의 평균성장률이 4.6%일 정도다.”

### -금강아산병원의 강점을 꼽는다면.

“튼튼한 배경과 전통 있는 병원! 아산재단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재단 산하의 병원이고, 서울아산병원이 모병원이며, 36년 역사를 지녔고, 좋은 병원을 만들려는 직원들의 의지



김형국 병원장은 “환자들이 금강아산병원과 그 소속원을 집과 가족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 강하다. 작지만 강한 ‘강소병원’이고, 지역주민들이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병원이다.”

###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근래 들어 신규 병원들의 시설이 좋아져서 이런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병원의 외형과 의료기기 같은 하드웨어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이런 면만 나아진다면 대학병원을 제외하곤 용산지역을 대표하는 2차병원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리라고 본다.”

### -앞으로 병원 운영계획은.

“아산재단 산하 병원장으로서 항상 신경 쓰는 것은 재단의 설립 이념에 어긋나지 않는 병원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설립자를 기념하는 ‘아산 메모리얼 호스피털’은 우리 병원이라는 인식과 자부심을 갖고 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0년 인천에서 태어난 김 원장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주, 성남고에 이어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을 거쳐 1998년 3월 금강아산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부임했고, 2009년 3월부터 병원장을 맡고 있다. 📍